

글로벌 제주를 위한

해외 주요 정책동향

International Policy Trends

No. 44



Contents

※ 정책뉴스 출처 : 中国新闻网, 中国经济网, KIEP, AIF 아세안, 日本経済新聞

※ 대상 기간 : 2025.06.05~2025.06.11

① 해외(아시아) 정책동향 요약	1
② 해외(아시아) 정책동향 주요 내용	6
▪ 중국	
- 2024년 중국 해양경제 규모 첫 10조 위안 돌파, 신흥 산업 성장 과시	6
- 중국 재정부, 2025년 민생 분야 투자 대폭 확대 발표	6
- 베이징, 패션 산업 육성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종합 행동 계획 발표	7
- 베이징, 기업 생애주기 전반을 지원하는 64개 서비스 목록 공개	8
- 톈진 국제 크루즈항, ‘아이다·메디테레이니언’호 복귀로 더블 모항 운영 재개	8
- 2025 글로벌 인공지능 기술 대회 항저우서 개최, AI 발전 청사진 제시	9
- 상하이, 음식물 쓰레기를 친환경 선박 연료로 전환하는 기술 상용화	10
- 충칭시, 도시 관리와 물류 혁신을 위한 저고도 경제 시나리오 목록 발표	10
- 중국, 스마트 노인 돌봄 로봇 상용화를 위한 시범 사업 추진	11
- 중국 국무원 국자위, 중앙 국유기업 3단계 발전 계획 관리 시스템 도입	12
▪ 일본	
- 일본 정부, 방일 외국인 대상 소비세 면세 폐지 및 출국세 인상 검토	12
- JR동일본, 이바라키현 33개 거점 전력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	13
- 일본 정부, 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 위한 세제 혜택 확대 추진	14

- 일본 정부,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에 3년간 270억 엔 투입 발표 14
- 후쿠시마 나미에정, 방사능 제염 후 논에 아이가모 로봇 투입 제초 실험 15
- 가와사키시, 증가하는 외국인 인재와의 공생 위해 과거 경험 활용 나서 16
- 미국 관세 정책, 후쿠오카현 수출 기업 35%에 '영향 있다' 응답 16
- 나가노현, 미국 관세 조치 대응 위한 신규 특별 용자 제도 도입 17
- INPEX, 천연가스 원료 수소·암모니아 제조 장치 시험 운전 개시 17
- 후쿠시마현, 정부에 재생에너지 출력 제어 대책 마련 강력 요구 18

■ 아세안

- 동남아 각국, 미국발 관세 불황 대비 대규모 경기 부양책 잇달아 발표 19
- 아세안, 걸프협력회의 및 중국과 경제 협력 강화로 새로운 전환점 마련 19

■ 베트남

- 베트남, 인구 감소 위기 대응 위해 '두 자녀 정책' 공식 폐지 20
- 베트남, 미국과의 무역 불균형 해소 위해 30억 달러 규모 농산물 수입 계약 21

■ 싱가포르

- 싱가포르,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 위해 외국인 노동자 유치 국가 확대 21

■ 필리핀

- 필리핀, 인도의 디지털 기술 전문성 활용해 핀테크 산업 육성 본격화 22

■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 내수 부진 극복 위해 15억 달러 규모 경기 부양책 발표 23

■ 말레이시아

- 말레이시아-중국, 경제 관계 강화 23
- 말레이시아, 쌀 생산 지역 가뭄 피해 최소화 위해 22억 원 긴급 투입 24
- 말레이시아 사라왁주, 팜유 농장을 활용한 신규 농업 전략 추진 24

1 해외(아시아) 정책동향 요약

○ 중국

- ✓ 중국 자연자원부가 발표한 ‘2025 해양경제 발전지수’에 따르면 2024년 해양생산총액이 사상 처음 10조 위안을 돌파하며 5.9% 성장함. 대외 무역 지수도 3.7% 상승하는 등 양적, 질적 성장을 동시에 달성
- ✓ 중국 재정부가 2025년 민생 분야 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국민 안정감 제고에 나섬. 교육 및 사회보장 지출 예산을 각각 6% 이상 증액하고 고용 안정, 기초 연금 및 의료 보장 수준 향상을 통해 견고한 사회 안정망 구축을 목표로 설정
- ✓ 베이징시가 패션 소비 확대를 위한 특별 행동 방안을 발표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에 나섬. 패션 공간 육성, 글로벌 브랜드 유치, 기술 융합을 통한 혁신적 소비 환경 조성을 통해 도시의 패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설정
- ✓ 베이징시 시장감독관리국이 기업의 창업부터 성장, 권익 보호까지 전 생애주기를 지원하는 64개 서비스 목록을 공개함. ‘일괄 처리’ 등 절차 간소화를 통해 기업의 행정 처리 효율성을 높이고 경영 환경 최적화를 추진
- ✓ 국제 크루즈선 ‘아이다·메디테레이니언’호가 텐진항에 복귀함에 따라, 텐진 국제 크루즈항이 반년 만에 2척의 크루즈를 운영하는 ‘더블 모항’ 체제로 복귀하며 여름 성수기 관광객 맞이를 본격적으로 시작
- ✓ 중국 항저우에서 ‘교차, 융합, 상생, 공영’을 주제로 ‘2025 글로벌 인공지능 기술 대회’가 개최됨. 국내외 전문가들이 모여 고급 칩, 구체화된 지능 등 AI 기술의 최신 동향과 산업 발전의 새로운 청사진을 논의

- ✓ 2025 상하이 탄소중립 박람회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친환경 선박 연료인 '녹색 메탄올'로 전환하는 기술이 공개됨. 상하이시는 10만 톤급 생산 프로젝트를 가동하여 해운 분야의 저탄소 전환 및 자원 순환 경제를 선도할 계획
- ✓ 중국 충칭시가 저고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 첫 응용 시나리오 목록을 발표함. 드론을 활용한 도시 관리, 응급 구조, 화물 물류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산지 지형에 특화된 초대형 도시의 현대적 관리 능력 제고를 목표로 설정
- ✓ 중국 공업정보화부와 민정부가 스마트 노인 돌봄 로봇의 상용화를 위해 2027년까지 시범 사업을 추진함. 가정, 지역사회, 요양기관 등 실제 현장에서 로봇을 실증 운영하며 다양한 돌봄 수요에 맞는 제품 개발과 표준화를 진행
- ✓ 중국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가 중앙 국유기업을 위한 3단계 발전 계획 관리 시스템을 도입함. 계획 수립부터 집행, 평가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핵심 지표를 경영 실적과 연동하여 계획의 실효성을 강화

○ 일본

- ✓ 일본 정부와 자민당 내에서 재원 확보를 위해 방일 외국인 대상 소비세 면세 제도를 폐지하거나, 1인당 1,000엔인 국제관광여객세를 인상하는 방안이 부상함. 다만 인바운드 소비 위축 우려로 신중론도 제기
- ✓ JR동일본이 이바라키현 내 33개 거점의 사용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고 발표함. 자사 태양광 발전소와 연계한 '오프사이트형' 전력 구매계약을 통해 연간 약 6,200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을 기대

- ✓ 일본 정부가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거점강화세제'를 연장하고 혜택을 확대할 방침임. 도쿄 23구에서 본사 기능을 이전하는 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범위를 넓혀 지방의 투자와 고용 창출을 지원
- ✓ 일본 정부가 딥테크(첨단기술) 분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3년간 최대 270억 엔을 투입한다고 발표함. '글로벌 스타트업 캠퍼스 구상'의 일환으로 국제 공동 연구 지원과 해외 우수 인재 유치에 집중할 계획임
- ✓ 후쿠시마현 나미에정이 원전 사고 후 제염을 마친 논에서 '아이가모 로봇'을 이용한 제초 실험을 실시함. 제초 시간을 절반 이하로 줄이는 등 재해 지역의 농업 재건과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 농업 기술의 가능성을 확인
- ✓ 일본 가와사키시가 과거 재일 한국인과의 공생 경험을 바탕으로 증가하는 외국인 인재와의 사회 통합을 모색함. 단순 노동력 활용을 넘어, 지역 사회와의 교류를 통해 진정한 다문화 공생 도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설정
- ✓ 후쿠오카현 조사 결과, 미국에 수출하는 현내 기업의 35%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응답함. 현은 관세 대책 특별 융자 제도를 신설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신속한 대응에 나섬
- ✓ 일본 나가노현이 미국의 관세 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신규 특별 융자 제도를 도입함. 매출 감소가 예상되는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등, 실적 악화 초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
- ✓ 일본 최대 석유·가스 기업 INPEX가 니가타현에서 천연가스를 원료로 수소와 암모니아를 제조하는 설비의 시험 운전을 시작함. 생산 과정의 이산화탄소는 포집·저장하는 친환경 방식으로 차세대 연료 시장에 대비
- ✓ 후쿠시마현이 정부에 재생에너지 '출력 제어'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 대책을 요구함. 안정적인 보급 확대를 위해 지역 간 연계선 정비와 대규모 축전 시스템 도입 등 국가 차원의 예산 지원을 강력히 촉구

○ 아세안

- ✓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미국의 고율 관세에 따른 경기 악화에 대비해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잇달아 발표함. 태국과 인도네시아 등은 저소득층 현금 지원, 중소기업 융자 확대 등을 통해 내수 소비 진작에 집중
- ✓ 아세안-걸프협력회의(GCC)-중국 정상회의가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되어 세 경제권의 경제 통합 심화 가능성을 부각시킴. 이는 글로벌 경제 지형의 변화를 예고하며 역내 안보 강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베트남

- ✓ 베트남 국회가 저출산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부부당 자녀수를 둘로 제한하던 '두 자녀 정책'을 공식 폐지함. 이와 함께 공립학교 수업료 무상화 등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한 파격적인 정책을 함께 추진
- ✓ 베트남이 미국과의 무역 불균형 해소 및 고율 관세 부과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약 3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 계약을 체결함. 이는 양국 간 통상 갈등을 완화하려는 베트남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풀이됨

○ 싱가포르

- ✓ 싱가포르가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라오스, 부탄, 캄보디아 출신 근로자 채용을 신규 허가함. 인력 공급국을 다변화하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 연령 상한을 63세로 상향하는 등 인력 확보를 위한 전방위적 정책을 시행

○ 필리핀

- ✓ 필리핀이 인도의 선진 디지털 기술 전문성을 활용해 자국 핀테크 산업 육성에 나섬. 양국은 디지털 결제 시스템 상호운용성 강화 등을 위한 공동 실무단을 운영하며 금융 서비스 혁신을 위한 협력을 본격화함

○ 인도네시아

- ✓ 인도네시아 정부가 내수 경기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약 15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발표함. 저소득층 대상 보조금, 현금 지원, 공공요금 할인 등을 통해 서민의 구매력을 높이고 5%대 경제성장률 유지를 목표로 설정

○ 말레이시아

- ✓ 중국이 대규모 투자를 통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주요국과의 경제 유대를 강화하며 역내 영향력을 확대함. 현지 여론조사에서도 중국 선호도가 높아지는 등 아세안의 전통적 균형 외교에 변화가 예상
- ✓ 말레이시아 정부가 주요 쌀 생산 지역의 가뭄 피해 최소화를 위해 약 22억 원의 특별 예산을 긴급 투입함. 기후 변화에 대응하여 관개 시설을 현대화하고, 불법 가축 밀수 단속을 강화하는 등 국가 식량 안보를 위해 노력
- ✓ 말레이시아 사라왁주가 농가 소득 증대 및 식량 수입 의존도 감축을 위한 신규 농업 전략을 추진함. 팜유 농장을 가축 사육과 결합하고, 생산 폐기물을 사료로 재활용하는 등 자원 순환 경제 모델 구축을 목표로 설정

2 해외(아시아) 정책동향 주요 내용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중국	○ 2024년 중국 해양경제 규모 첫 10조 위안 돌파, 신흥 산업 성장 과시 - 중국 자연자원부가 발표한 ‘2025 중국 해양경제 발전지수’에 따르면, 2024년 중국의 해양경제발전지수는 125.2로 전년 대비 2.3% 상승했으며, 처음으로 해양생산총액이 10조 위안을 돌파하며 5.9%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함. 이는 복잡한 외부 환경 속에서도 중국 해양경제가 양적 성장과 질적 향상을 동시에 달성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성과로 평가 - 해양경제의 구조적 최적화와 고도화가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관련 지수는 131.0에 달함. 특히 해양 신흥 산업의 부가가치가 전년 대비 7.2% 증가하며 전체 해양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지속적으로 높여가고 있는 점이 주목됨. 해양 제조업 부가가치는 3.2조 위안으로 전체의 30% 이상을 차지하며 안정적인 기반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대외 경제 및 무역 지수는 121.3으로 전년 대비 3.7% 성장했으며, 해상 운송 수출입 총액, 국제 항로 컨테이너 처리량, 선박 수출액 등 다수 지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함. 특히 선박 수출액은 3,086.5억 위안으로 58.7% 급증했으며, 민생 보장 및 개선 지수 또한 125.7로 상승하며 해양 환경 보호와 연안 관광 분야의 발전을 증명
	○ 중국 재정부, 2025년 민생 분야 투자 대폭 확대 발표 -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 브리핑에서 재정부는 2025년 민생 분야 투자를 한층 더 강화하여 대중의 행복감과 안정감을 높일 것이라고 발표함. 전국 교육 지출과 사회보장 및 고용 지출 예산은 각각 6.1%, 5.9% 증가하여 약 4.5조 위안에 이를 예정이며, 보건 건강 등 다른 민생 분야 지출도 높은 증가율을 유지하며 민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중국	생 안정망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 - 고용 우선 정책 강화를 위해 중앙정부는 667.4억 위안의 고용 보조금을 지원하고, 실업 및 산재 보험료율 인하 연장, 실업보험 안정 반환 등 정책을 통해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일자리를 안정시킬 방침임. 또한, 일회성 고용 확대 보조 정책 범위를 사회 조직까지 넓혀 대학 졸업생 등 청년층의 고용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고 장애인 등 취약 계층의 고용 지원도 강화할 예정 - 기초 연금 및 의료 보장 수준도 향상될 전망으로, 전국 기초 연금 월 최저 기준을 20위안 인상하고 퇴직자 기본 연금도 적절히 인상하여 3억 명 이상의 노인이 혜택을 받게 됨. 또한 1인당 공중 보건 서비스 및 의료 보험 재정 보조 기준을 각각 99위안과 700위안으로 상향 조정하여 의료 서비스의 공평성을 제고하고 대중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킬 계획
	○ 베이징, 패션 산업 육성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종합 행동 계획 발표 - 중국 베이징시가 수도의 매력을 표현하고 패션 소비 공급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 ‘베이징시 패션 소비 확대 특별 행동 방안’을 발표함. 이번 방안은 패션 공간 육성, 브랜드 혁신, 산업 역량 강화라는 세 가지 핵심 전략을 통해 다각적인 소비 수요를 만족시키고 도시의 패션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설정 - 패션 공간 육성 행동은 국제화와 현지화가 결합된 패션 소비 공간 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둠. 이를 통해 패션 상권의 새로운 구도를 형성하고, 베이징의 전통적 특색과 현대적 활력이 융합된 랜드마크를 조성하며, 다채로운 스포츠 및 문화 행사를 결합한 특색 있는 소비 집결구를 만들어 새로운 소비 트렌드를 선도할 계획 - 브랜드 혁신 및 산업 역량 강화 측면에서는 글로벌 우수 브랜드의 첫 매장 유치, 본토 맞춤형 브랜드 육성, 연구개발 센터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중국	설립 등을 장려함. 또한 의류, 공예미술 분야의 맞춤형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가상현실(VR),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하여 가상 쇼핑 및 체험과 같은 혁신적인 소비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할 방침
	○ 베이징, 기업 생애주기 전반을 지원하는 64개 서비스 목록 공개 - 베이징시 시장감독관리국이 기업의 행정 처리 효율성을 높이고 경영 환경을 최적화하기 위해 '시장감독부문 대기업 서비스 사항 목록'을 발표함. 이 목록은 기업의 창업부터 성장, 발전, 권익 보호에 이르는 전 생애주기를 포괄하는 4단계 25개 분야의 총 64개 서비스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업의 시각에서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 - 창업 초기 단계에는 사업자 등록, 식품 생산 경영 허가 등 15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영 성장 단계에서는 변경, 이전, 신용 관리 등 34개 서비스를 지원함. 특히 '일괄 처리' 통합 서비스, 징진지(베이징·톈진·허베이) 지역 간 '성(省) 간 통일 처리' 등을 통해 절차를 간소화하고 기업의 편의성을 극대화하여 행정 처리의 새로운 속도를 보여주고 있음 - 고품질 발전 단계에서는 품질 기술 지원, 표준화 전략 보조금 등 9가지 핵심 지원책을 제공하며, 권익 보호 단계에서는 상호 분쟁 해결, 선불카드 관리 지도 등 6개 서비스를 통해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보장
	○ 톈진 국제 크루즈항, '아이다·메디테레이니언' 호 복귀로 더블 모항 운영 재개 - 국제 크루즈선 '아이다·메디테레이니언(Aida Mediterranea)' 호가 톈진항에 도착하여 톈진을 모항으로 한 운항을 공식적으로 재개함. 이로써 톈진 국제 크루즈 모항은 기존의 '드림(Dream)' 호와 함께 두 척의 크루즈를 동시에 운영하는 '더블 모항' 운영 모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중국	델로 반년 만에 복귀하게 되었으며, 이는 2025년 여름 크루즈 성수기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평가 - '아이다·메디테레이니언'호는 복귀 당일 저녁 만재한 승객을 태우고 일본으로 출항했으며, 올여름 시즌 동안 텐진을 모항으로 하여 후쿠오카, 사세보, 제주 등 인기 여행지를 방문하는 6일 5박 일정의 국제 크루즈 노선을 10여 차례 운항할 계획임. 여름 방학 크루즈 여행 시즌이 다가옴에 따라 텐진 등장 국제 크루즈 모항은 곧 출입국객 유동량의 최고점을 맞이할 것으로 예상 - 텐진 등장 출입국 검문소는 승객들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통관을 보장하기 위해 크루즈 회사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승객 정보 사전 등록 및 인공 심사 창구 전체 개방 등의 조치를 시행함. 또한, 노인 및 유아 등 특별 지원이 필요한 승객들을 위한 '녹색 통로'를 운영하고, 자체 개발한 자동 순찰 로봇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통관 환경을 제공하고 있음
	○ 2025 글로벌 인공지능 기술 대회 항저우서 개최, AI 발전 청사진 제시 - 중국 인공지능학회 주최로 '교차, 융합, 상생, 공영'을 주제로 한 2025 글로벌 인공지능 기술 대회가 항저우에서 성황리에 개최됨. 이번 대회에는 국내외 전문가 약 300명이 참석하여 인공지능 기술의 최신 돌파구와 산업 변화의 새로운 동향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하며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마련 - 칭화대학교 정보과학기술대학장이자 중국 인공지능학회 이사장인 다이충하이(戴冲海)는 중국이 완비된 기술 체계와 생태계를 구축했지만, 앞으로는 고급 칩, 기본 아키텍처 혁신, 안전성 확보 등에서 단점을 보완하고 체인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함. 특히 가상과 현실이 융합되는 '구체화된 지능' 발전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기술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중국	- 행사 현장에서는 항저우 미래과학기술성의 산업 응용 분야별 특화 거대 모델 발표, 지식재산권 증권화 융자 지원 활동 개시 등 다양한 산업 발전 성과가 공개됨. 이와 같은 다차원적 지원은 항저우가 인공지능 산업 클러스터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글로벌 지능형 세계 구축을 위한 핵심 기지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
	○ 상하이, 음식물 쓰레기를 친환경 선박 연료로 전환하는 기술 상용화 - 2025 상하이 국제 탄소중립 박람회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활용해 친환경 메탄올을 생산하고 이를 선박 연료로 사용하는 혁신 기술이 공개됨. 이는 상하이가 세계 최대 컨테이너 항구로서의 위상에 걸맞게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고 있으며, 탄소 저감형 해운 산업 구축에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평가 - 상하이항은 현재 해외에서 소량 수입되던 고가의 녹색 메탄올을 현지에서 직접 생산하기 위해 연간 10만 톤급 생산 프로젝트를 시작함. 이 프로젝트는 지역 내 풍력 발전소에서 생산된 친환경 전기를 활용하며, 상하이의 여러 국유 기업이 원료 공급부터 운영, 판매까지 전 과정에 걸쳐 협력하여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 - 구체적으로 도시의 음식물 쓰레기를 발효시켜 얻은 바이오가스를 정제하여 바이오 천연가스를 만들고, 이를 통해 녹색 메탄올을 생산하는 자원 순환 모델을 구축함. 이는 상하이 국제 해운 허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쌍탄소'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경제적, 전략적 의미를 모두 확보하는 중요한 성과로 기록될 전망
	○ 충칭시, 도시 관리와 물류 혁신을 위한 저고도 경제 시나리오 목록 발표 - 중국 충칭시가 저고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 첫 번째 응용 시나리오 기획 목록 42개와 능력 목록 40개를 공식 발표함. 이번 발표는 초대형 도시의 현대적 관리와 저고도 화물 물류라는 두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가지 핵심 영역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관련 기술과 서비스의 실제 적용을 가속화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 발표된 시나리오에는 드론을 활용한 도시 공역 관리 및 비행 안전 확보, 시장 감독 및 종합 법 집행을 위한 공중-지상 입체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됨. 또한 고층 건물 화재 진압, 삼림 방화, 응급 물자 수송, 의료 구조 등 다양한 응급 대응 시나리오에서 드론의 활용을 극대화하여 도시의 안전 관리 능력을 제고할 계획 - 특히 충칭의 '산지 도시+초대형 도시'라는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심과 농촌을 잇고 청위(충칭-청두) 경제권을 아우르는 저고도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임. 이는 시급성이 높은 화물의 드론 배송 서비스를 확대하고, 물류 효율성을 혁신적으로 개선하여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중국	○ 중국, 스마트 노인 돌봄 로봇 상용화를 위한 시범 사업 추진 - 중국 공업정보화부와 민정부가 공동으로 '스마트 노인 돌봄 서비스 로봇의 공동 개발 및 현장 적용 시범 사업에 관한 통지'를 발표함. 2025년부터 2027년까지 진행될 이번 시범 사업은 로봇 연구개발 기관과 실제 사용자가 협력하여 다양한 노인 돌봄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용화된 로봇 제품군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 시범 사업은 가정, 지역사회, 요양기관이라는 세 가지 주요 노인 돌봄 환경을 대상으로 진행됨. 실생활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신체 기능 장애 및 인지 저하 노인 돌봄, 정서적 교감, 건강 증진, 일상생활 보조 등 다양한 시나리오에 맞는 로봇 기술의 안전성, 신뢰성, 사용 편의성을 점진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둘 계획 - 성공적인 시범 적용을 위해 구체적인 보급 목표도 설정되었는데, 가정용 돌봄 로봇은 최소 200가구에 200대 이상, 지역사회 및 기관용 로봇은 최소 20개 지역사회 또는 20개 요양기관에 2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중국	0대 이상을 배치하여 6개월 이상의 실증 운영을 거쳐야 함. 이를 통해 제품의 반복적인 개선과 표준화 연구를 함께 진행하여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예정 ○ 중국 국무원 국자위, 중앙 국유기업 3단계 발전 계획 관리 시스템 도입 - 중국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국자위)가 '중앙기업 발전 계획 관리방법'을 공식 발표하며, 국유자산 및 중앙기업을 위한 3단계 발전 계획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처음 명확히 함. 이는 중앙기업의 계획 수립부터 집행, 평가, 조정에 이르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국가 전략 수행 능력을 강화하고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 - 이번에 발표된 새로운 관리방법은 2004년 규정 대비 ▲산업 방향성 강조 ▲폐쇄 루프 관리 강화 ▲규범적 구속력 강화를 특징으로 함. 기업 발전의 방향성과 전체적인 틀을 제시하는 '발전 강령'으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계획 수립과 집행의 주체 및 책임이 기업에 있음을 강조하여 자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부여한 것이 핵심 - 새로운 3단계 계획 체계에 따라, 국자위는 전체적인 계획 수립과 시행을 총괄하고, 각 중앙기업은 상위 계획에 근거하여 그룹 전체의 발전 계획과 핵심 분야별 계획, 그리고 자회사 계획을 수립하게 됨. 또한, 계획의 핵심 지표는 중앙기업 책임자의 경영 실적 평가에 직접 연동되어 계획의 실효성과 집행력을 강력하게 담보할 예정
일본	○ 일본 정부, 방일 외국인 대상 소비세 면세 폐지 및 출국세 인상 검토 - 일본 정부와 자민당 내에서 방일 외국인에 대한 세금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음. 이는 유권자의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연말 세제 개정 논의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제기됨. 주요 방안으로는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일본	상품 구매 시 적용되는 소비세 면세 제도를 폐지하거나, 출국 시 부과되는 국제관광객세를 인상하는 안이 거론 - 자민당의 아소 다로 최고 고문은 최근 연구 모임에서 소비세 면세 제도를 원칙적으로 폐지하자는 제안을 내놓음. 그는 가전 제품이나 의약품 대량 구매 현상이 관광입국의 본질과 맞지 않으며, 불법 전매 목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함. 또한, 2026년 도입 예정인 '리펀드형' 제도 역시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고 비판 - 국제관광객세 인상안도 함께 부상하고 있는데, 현재 1인당 1,000엔인 세금이 다른 국가에 비해 낮다는 지적에 따른 것임. 이시바 시게루 총리도 검토 의사를 밝힌 바 있음. 다만, 이러한 방안들이 인바운드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정책 결정 과정에서 치열한 논의가 예상
	○ JR동일본, 이바라키현 33개 거점 전력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 - JR동일본이 자사 보유 태양광 발전소 등을 활용해 이바라키현 내 33개 거점에서 사용하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한다고 발표함. 이번 조치를 통해 연간 약 6,200톤의 이산화탄소(CO2) 배출량 감축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는 그룹 차원에서 재생에너지 전원으로 생산한 환경 가치를 자사에서 직접 활용하는 첫 번째 사례로 기록 - 이번 계획은 선로변에 설치된 '조반선 도모베-우치하라 구간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을 원격지의 자사 거점에서 사용하는 '오프사이트형' 전력구매계약(PPA) 방식을 채택함. 신전력 회사인 이렉스의 자회사 에버그린 마케팅과 계약을 체결하여,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과 도매 전력 시장에서 조달한 재생에너지를 결합하여 공급받게 됨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일본	- 전력 공급 대상은 이바라키현 내 조반선 29개 역 중 22개 역과 차량 기지 등이며, 이를 통해 해당 거점들은 사용하는 모든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게 됨. 4,200킬로와트(kW) 규모의 해당 발전소는 2015년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며, 이번 계약은 JR동일본과 이텍스 간의 자본 업무 제휴 발표 이후 이루어진 구체적인 협력 성과임
	○ 일본 정부, 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 위한 세제 혜택 확대 추진 - 일본 정부가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고 지역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세제 우대 제도를 대폭 확충할 방침임. 곧 각 의에서 결정될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의 기본방침(뼈대 방침)'에 해당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지방의 투자와 고용 창출을 강력하게 지원하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음 - 현재 운영 중인 '지방거점강화세제'는 도쿄 23구에서 본사 기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로, 2025년 말에 기한이 만료될 예정임. 정부는 2026년도 세제 개정에서 이 제도의 연장을 추진하는 동시에, 세액 공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건물 리모델링도 포함하는 등 요건 완화를 적극 검토할 계획 - 이 제도를 통해 2025년 4월 말 기준으로 도쿄 23구로부터의 이전 74건, 지방 거점 확충 693건이 인정되었으며, 약 3만 2,000명 이상의 신규 고용이 창출된 것으로 집계됨. 정부는 세제 혜택 강화를 통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할 전망
	○ 일본 정부,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에 3년간 270억 엔 투입 발표 - 조노우치 미노루 과학기술상이 인공지능(AI), 로봇 등 딥테크(첨단기술) 분야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향후 3년간 최대 270억 엔을 투입한다고 발표함. 이번 투자는 '글로벌 스타트업 캠퍼스 구상'의 일환으로, 인재 육성과 국제 공동 연구를 중점적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일본	으로 지원하여 일본의 기술 창업 생태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 - 지원 내용은 크게 ▲국제 공동 연구(연간 약 70억 엔), ▲사업화 지원(연간 약 10억 엔), ▲인재 육성(연간 약 10억 엔)의 세 가지 분야로 구성됨. 재원은 과학기술진흥기구(JST)의 기금을 활용하며, 올해 10월 이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예정임. 이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인재와 투자를 유치하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특히 인재 육성 부문에서는 해외의 우수한 연구자를 일본 연구 기관으로 초빙하여 국제적인 네트워크 형성을 도모할 계획임. 이는 최근 미국 정권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미국 내 연구자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정부의 방침과도 맥을 같이하며, 일본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중요한 전략으로 평가
	○ 후쿠시마 나미에정 방사능 제염 후 논에 아이가모 로봇 투입 제초 실험 - 후쿠시마현 나미에정이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성 물질 제염 작업을 마친 논에서 로봇을 이용한 제초 실험을 성공적으로 실시함. 이번 실험은 도호쿠대학 및 도쿄농공대학 스타트업 뉴그린(NEWGREEN)과 협력하여 진행되었으며, 원전 재해 지역의 농업 재건과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중요한 시도로 평가받고 있음 - 실험에 사용된 '아이가모 로봇'은 과거 오리를 이용한 친환경 농법에서 착안한 것으로, 논에 물을 가둬 자갈을 주행하며 바닥의 발톱을 회전시켜 잡초를 제거함. 이 로봇을 사용하면 제초에 걸리는 시간을 기존의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으며, 수확량 증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어 농가의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전망 - 후쿠시마현의 제염 후 논은 토양을 걷어내고 산모래를 넣은 경우가 많아 제초제 효과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음. 따라서 로봇을 활용한 물리적 제초 방식이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으며, 나미에정은 이번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기술 보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재해 지역의 스마트 농업을 선도해 나갈 계획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일본	○ 가와사키시, 증가하는 외국인 인재와의 공생 위해 과거 경험 활용 나서 - 일본 가와사키시가 증가하는 외국인 노동자와의 다문화 공생을 위해 과거의 경험을 적극 활용하고 있음. 미우라 아츠시 전 가와사키시 부시장은 퇴직 후에도 국내외를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하며, 최근에는 방글라데시 인재 소개 세미나를 기획하는 등 외국인 인재 유치와 지역 사회 통합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미우라 전 부시장은 노동 인구 감소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며, 특히 건설, 제조업, 의료, 물류 등 필수 노동 분야에서 외국인 인재의 필요성을 강조함. 그는 장기적으로 노동 인구의 10%가 외국인이 될 시대를 대비해야 하며, 단순한 저임금 노동력 활용을 넘어선 진정한 의미의 다문화 공생이 중요하다고 역설함 - 가와사키시는 과거 제일 한국인과의 공생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 최초로 헤이트 스피치에 대한 형사 처벌 조례를 만드는 등 외국인 인권 보호에 앞장서 왔음. 이러한 역사적 경험과 제도적 기반은 앞으로 늘어날 외국인 주민들과 지역 사회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데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음
	○ 미국 관세 정책, 후쿠오카현 수출 기업 35%에 '영향 있다' 응답 - 일본 후쿠오카현이 실시한 조사 결과, 미국에 제품을 수출하는 현내 중소기업 중 35%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응답함. 특히 자동차 관련 업종에서는 그 비율이 22%에 달했으며, 매출 감소와 제조원가 상승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이번 조사는 현내 중소기업 1만 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응답한 2,299개사 중 전체의 9%가 '영향이 있다'고 답함. 구체적인 영향으로는 '매출 감소'가 가장 많았고, '제조원가 상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일본	승', '자금 조달 악화'가 그 뒤를 이었음. 심지어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는 응답도 23건에 달해 사태의 심각성을 보여줌 - 이에 후쿠오카현은 지난 4월부터 종합대책협의회를 운영하며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음. 기업들이 가장 희망하는 지원책으로는 '자금 조달 지원'이 꼽혔으며, 현은 이미 5월부터 관세 대책 특별 용자 제도를 신설하여 30건, 총 6억 3,000만 엔의 용자를 실행하는 등 신속한 지원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
	○ 나가노현, 미국 관세 조치 대응 위한 신규 특별 용자 제도 도입 - 일본 나가노현이 미국의 관세 조치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현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새로운 용자 제도를 신설하고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함. '경영 건전화 지원 자금'이라는 이름의 이 제도는 관세 조치로 인해 최근 3개월간의 매출액이 과거 3년 동기 대비 5% 이상 감소한 사업자를 주된 지원 대상으로 설정 - 이번 관세 대책 용자는 운전 자금 최대 8,000만 엔, 설비 자금 최대 6,000만 엔까지 지원하며, 대출 기간은 각각 7년과 10년, 금리는 연 1.2%로 책정됨. 특히, 미국의 관세 정책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기업들이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요건을 완화한 것이 특징으로 주목받고 있음 - 통상적인 용자 제도가 과거 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과 달리, 이번 제도는 최근 2개월간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 이상 감소하고, 향후 1개월을 포함한 3개월간의 매출이 5%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함. 이는 기업의 실적 악화 초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
	○ INPEX, 천연가스 원료 수소·암모니아 제조 장치 시험 운전 개시 - 일본 최대 석유·가스 개발 기업 INPEX가 니가타현 가시와자키 시에서 천연가스를 원료로 수소와 암모니아를 제조하는 설비의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일본	시험 운전을 시작했다고 발표함. 이번 프로젝트는 차세대 연료 보급에 대비하여 생산 노하우를 축적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CO2)를 포집·저장하는 기술(CCUS)을 결합한 친환경 모델임 - 시험 운전을 거쳐 올가을부터 본격적인 수소 생산에 착수할 예정이며, 연간 700톤의 수소를 생산할 계획임. 생산된 수소는 부지 내 발전 설비에 사용되어 가시와자키시에 전력을 공급하고, 일부는 질소와 결합하여 암모니아로 가공한 뒤 현지 기업에 판매될 예정임. 이는 수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중요한 단계로 평가받고 있음 -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생산이 종료된 인근의 기존 가스전에 저장하여 환경 부하를 최소화할 방침임. 연소 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수소와 암모니아는 산업 및 운송 분야의 차세대 연료로 큰 기대를 받고 있으며, INPEX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관련 기술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계획
	○ 후쿠시마현, 정부에 재생에너지 출력 제어 대책 마련 강력 요구 - 일본 후쿠시마현이 전력회사가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의 매입을 거부하는 '출력 제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에 공식적으로 요구함. 동일본 대지진 이후 부흥의 핵심 동력으로 재생에너지 도입을 적극 추진해 온 후쿠시마현은 안정적인 보급 확대를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입장임 - 우치보리 마사오 후쿠시마현 지사는 이토 타다히코 부흥상에게 직접 요청서를 전달하며, 전력회사의 경계를 넘어 전력을 유통할 수 있는 지역 간 연계선 정비와 대규모 축전 시스템 도입을 위한 예산 지원을 강력히 촉구함. 이는 재생에너지 생산량이 많은 시간대에 전력을 저장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보낼 수 있도록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일본	록 하여 출력 제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 요청서에는 재생에너지 대책 외에도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 전 사고와 관련된 귀환곤란구역 해제, 영농 재개 지원, 제염토 최종 처분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8가지 항목이 포함됨. 특히 수소 활용을 위한 파이프라인 정비 등 미래 에너지 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도 함께 요구하며 부흥의 새로운 단계를 준비하고 있음을 분명히 함
아세안	○ 동남아 각국, 미국발 관세 불황 대비 대규모 경기 부양책 잇달아 발표 -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으로 인한 경기 악화에 대비해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음. 태국은 중소기업 지원 등에 약 7,000억 엔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재정 긴축을 추진해 온 인도네시아 역시 저소득층 현금 지원 등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며 선제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확인 - 인도네시아는 그동안 추진해 온 예산 삭감 방침을 철회하고, 저소득층 약 1,800만 명에게 현금과 쌀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4조 4,400억 루피아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발표함. 이는 최근 둔화된 성장률을 5%대로 유지하고 국민의 구매력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내수 소비 진작을 목표로 하고 있음 - 태국 역시 1,570억 바트 규모의 자금을 인프라 정비, 관광지 개발 등에 투입할 예정이며, 말레이시아도 중소기업을 위한 저금리 융자 확대 방안을 발표함. 각국 중앙은행 또한 금리 인하 등 금융 완화 기조로 돌아서고 있으나, 과도한 재정 지출이 물가 상승이나 재정 규율 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 ○ 아세안-걸프협력회의 및 중국과 경제 협력 강화로 새로운 전환점 마련 - 최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 아세안-걸프협력회의(GCC)-중국 정상회의가 글로벌 경제 및 정치 지형에 근본적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아세안	인 변화를 예고하는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음. 주최국인 말레이시아는 가자 지구 사태에 대한 공동성명 도출을 주도하며 성공적인 중재자 역할을 수행하여 국제적 위상을 높임 - 이번 정상회의는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 이상과 상당한 규모의 국내총생산(GDP)을 차지하는 세 경제권 간의 통합 심화 가능성을 부각시킴. 특히 말레이시아는 이번 회의를 발판 삼아 아세안 및 동아시아 시장으로의 전략적 투자 유치를 가속화하고, GCC와의 포괄적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통해 교역 규모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계획 - 아세안상품무역협정(ATIGA), 아세안-중국 자유무역지대(ACFTA) 등을 통해 말레이시아 국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됨. 또한, 세 경제권 간의 경제 통합 심화는 아세안의 중심성, 중립성 원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역내 안보 강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어 그 귀추가 주목
베트남	○ 베트남, 인구 감소 위기 대응 위해 '두 자녀 정책' 공식 폐지 - 베트남 국회가 부부 한 쌍당 자녀 수를 두 명까지로 제한해 온 '두 자녀 정책'을 공식적으로 폐지하는 인구 조례 개정안을 가결함. 이는 부부가 자율적으로 자녀 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적인 저출산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베트남의 인구 정책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 - 베트남은 현재 인구 증가 추세에 있지만, 경제 성장을 이끌어 온 '인구 보너스' 시기가 2040년경 끝날 것이라는 전망에 따라 위기감을 느끼고 있음. 이에 앞서 올해 3월에는 공산당 당규를 개정하여 세 번째 자녀를 낳은 당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없애는 등 출산 장려를 위한 사전 조치를 시행한 바 있음 - 출산율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높은 교육비 문제 해결을 위해 공립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수업료를 전면 무상화하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베트남	기로 결정함. 올해 9월 새 학기부터 적용될 이 정책은 자녀 양육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춰 출산을 고민하는 부부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며, 동남아시아의 저출산 문제 대응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
	○ 베트남 미국과의 무역 불균형 해소 위해 30억 달러 규모 농산물 수입 계약 - 베트남이 미국과의 무역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고 고율 관세 부과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약 3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 수입 협약 20건을 체결함. 이는 베트남이 미국의 무역 관련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포괄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양국 간 경제 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 - 미국은 베트남에 최대 46%의 고율 관세 부과를 예고한 바 있으며, 현재는 유예 기간 동안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베트남 정부는 무역 사기 단속을 강화하는 동시에, 이번 계약과 같이 미국산 제품 구매를 확대하는 전략을 통해 미국의 관세 재검토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지난 5월에 열린 제2차 무역 협상에서 양국은 일부 진전을 이루었다고 밝혔으나,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음을 시사함. 이번 대규모 농산물 수입 계약은 베트남이 무역 갈등을 피하고 안정적인 통상 관계를 유지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향후 협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
싱가포르	○ 싱가포르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 위해 외국인 노동자 유치 국가 확대 - 싱가포르 정부가 만성적인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6월 1일부터 라오스, 부탄, 캄보디아 출신 근로자들의 취업 허가를 신규로 승인하기로 결정함. 이는 기존의 인력 공급국 외에 '비전통적 인력공급국(NTS)' 목록을 확대하여 인력 공급망을 다변화하려는 전략의 일환으로, 산업계의 기대를 모으고 있음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싱가포르	- 이번 조치로 건설업, 조선해양업, 공정산업 등 주요 산업 분야와 제조업 및 서비스업 일부 직종에서 해당 국가 출신 인력을 합법적으로 채용할 수 있게 됨. 탄 시룽 인력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기업들이 숙련되고 탄력적인 인력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히며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 - 싱가포르 인력부는 인력 안정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취업 허가 소지자의 최대 고용 기간을 연장하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 연령 상한선을 기존 60세에서 63세로 상향 조정하는 등 추가적인 지원책도 함께 시행할 방침임. 또한 오는 9월 중 NTS 직종 목록에 대한 추가 업데이트를 예고하며 지속적인 제도 개선 의지를 보임
필리핀	○ 필리핀, 인도의 디지털 기술 전문성 활용해 핀테크 산업 육성 본격화 - 필리핀과 인도가 양국 간 핀테크 분야 협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합의함. 랄프 렉토 필리핀 재무부 장관과 하쉬 자인 인도 대사는 최근 회담을 통해 양국 간 핀테크 솔루션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으며, 이는 필리핀의 디지털 경제 전환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 - 필리핀은 인도의 선진적인 디지털 기술 전문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국의 핀테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이미 체결한 바 있음. 또한, 2024년에는 양국의 디지털 결제 시스템 연결성, 상호운용성, 핀테크 솔루션 공동 개발을 목표로 하는 공동 실무단을 설립하여 협력의 기반을 다져왔음 - 필리핀의 핀테크 부문은 지난 3년간 약 40%의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양국은 앞으로 디지털 경제, 디지털 결제, 디지털 인프라, 금융 포용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 개발 협력의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평가함. 이번 협력 강화는 필리핀의 금융 서비스 혁신을 가속화하고 국민들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인도네시아	○ 인도네시아, 내수 부진 극복 위해 15억 달러 규모 경기 부양책 발표 - 스리 물라니 인드라와티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이 24조 4,400억 루피아(약 2조 500억 원) 규모의 신규 경기 부양책을 공식 발표함. 이번 조치는 최근 둔화된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고,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도 2분기 경제성장률 5%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됨 - 이번 경기 부양 패키지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보조금 지급, 현금 및 식료품 지원, 전기세 감면, 교통비 할인 등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다양한 지원책을 포함하고 있음. 특히, 국영기업이 고속도로 통행료 보조금 등을 일부 분담하고, 정부가 나머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정책의 신속한 집행을 도모할 계획 -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부양책이 단기적인 소비 진작 효과는 있겠지만, 부진한 내수를 완전히 회복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함. 따라서 중산층의 구매력을 실질적으로 높이고 현지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추가적인 구조적 정책이 병행되어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음
말레이시아	○ 말레이시아-중국 경제 관계 강화 - 중국이 대규모 투자를 앞세워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들과의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며 역내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음. 동남아시아연구소(ISEAS)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인의 71%가 미국보다 중국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현지 인식에 미치는 효과가 가시적으로 드러남 - 웡 키안 밉 전 말레이시아 국제통상산업부 차관은 관광객 증가, 외국인직접투자(FDI) 확대, 현지 중국인들의 사업 진출 증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함. 이러한 경제 협력 심화는 역내 경제 발전과 상호 이익 증진이라는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말레이시아	긍정적인 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다는 기대를 넣고 있음 - 중국과 동남아 국가들 간의 밀착 강화는 아세안이 전통적으로 유지해 온 강대국 간 균형 전략에 미묘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 역내 경제 통합이 가속화되면서, 아세안 국가들이 글로벌 역학 관계 속에서 어떠한 전략적 선택을 할 것인지에 대해 국제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변화하고 있음
	○ 말레이시아, 쌀 생산 지역 가뭄 피해 최소화 위해 22억 원 긴급 투입 - 말레이시아 농업식품안보부가 주요 쌀 생산 지역의 극심한 가뭄 피해를 최소화하고 식량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700만 링깃(약 22억 원)의 특별 예산을 긴급 배정했다고 발표함. 이 예산은 물 부족 상황에서도 논에 안정적으로 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관개 시스템을 현대화하고 농업 인프라를 개선하는 데 집중적으로 투입될 예정 - 최근 말레이시아 기상청은 말레이반도 내 6개 지역에 지속적인 이상 고온 현상으로 1단계(경계) 폭염 경보를 발령하는 등 기후 변화로 인한 농업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임. 이번 예산 투입은 이러한 기후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국가의 핵심 식량인 쌀 생산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 - 아서 조셉 쿨럽 차관은 이와 함께 태국으로부터의 불법 가축 밀수가 국가 식량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를 차단하기 위해 주정부와 연방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함. 이는 국가 식량 주권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귀추가 주목
	○ 말레이시아 사라왁주, 팜유 농장을 활용한 신규 농업 전략 추진 - 말레이시아 사라왁주의 아방 조하리 툰 오펑 주지사가 농가 소득 증대와 식량 수입 의존도 감축을 목표로 하는 혁신적인 신규 농업 전략을 연내에 마련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이번 전략은

국가	제목 및 주요 내용
말레이시아	사라왁주의 풍부한 팜유 산업 자원을 활용하여 농업 부문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주목받고 있음 - 신규 전략의 핵심은 기존의 넓은 팜유 농장을 가축 사육을 병행하는 통합형 농장으로 전환하는 것임. 특히, 팜유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야자박 등 폐기물을 바이오매스 기반의 고품질 가축 사료로 재활용하여 현재 수입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사료를 대체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이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영양가 높은 가축 사료를 현지에서 안정적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게 되어 축산업의 원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음. 또한, 이는 사라왁주 농업 부문의 자급률을 높이고 자원 순환 경제를 구축하는 중요한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전망

※ 본 발간물은 제주연구원(연구기획부)에서 온라인 상의 자료를 조사하여 재정리한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